

마포구공단 직원 2명, '제27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선정

✎ 김혜란 기자 | ⌚ 승인 2026.07.07 19:00

황인수·김병숙 수상의 영예...현장 중심 관리로 청결·위생 항상 기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최근 열린 '제27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에서 우수관리인으로 선정됐다.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진택) 소속 황인수, 김병숙 두 명의 직원이 행정안전부와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27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에서 우수관리인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은 전국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현장 관리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수상자는 이용객 증가 등 열악한 관리 여건 속에서도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구민과 이용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청결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황진택 이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쓴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